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풍토(風土)'의 발견과 단카(短歌) 속의 '조선풍토'

- 시각화된 풍토와 문자화된 풍토의 비교 고찰 -*

김보현**

〈차 례〉

1. 머리말
2. 근대 '풍토(風土)'의 개념과 식민지 조선의 '풍토(風土)' 발견
3. 시각화된 풍토와 문자화된 풍토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전통 운문장르에서의 '조선색'에 관해 논할 때 그 명제가 무엇인지 부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실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풍토(風土)'라는 키워드를 제시, 전개하였다. '풍토'라는 말은 조선을 비롯하여 만주, 대만 등 새로운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한 식민지를 대상으로 발간된 다양한 서적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식민지의 풍토'는 '내지(內地)'와는 다른 '외지(外地)'의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환경, 풍습 등

* 이 연구 성과는 2014년 BK21플러스 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 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류' 서적들은 조선 풍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한편 그 궁극적인 목적과 배경에는 '신영토' 통치를 위한 당시의 정치색이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개된 가단(歌壇)에서도 조선의 풍토는 '내지'와는 차별화되는 '조선가단(歌壇)'만의 특색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조선 풍토를 기반으로 한 소재들이 단카의 제재로서 발굴, 권장되어갔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당시 발간된 가집(歌集)중에는 '풍토'와 연관하여 발간된 가집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935년 발간된『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은 그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단카 풍토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선의 풍토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양의 노래를 싣고 있다. 그리고 당시 미술계와 '풍토류' 서적, 그리고 단카에서의 '조선적인 것'의 소재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소재들은 조선의 로컬컬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으로 굳어져 갔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게꾼, 빨래하는 여성, 독을 이고 가는 여성'과 같이 조선의 대표적인 풍토로 대변되었던 소재가 시각화된 그림과 문자화된 단카에서의 비교를 통해 동시대 조선 풍토에 대한 표상이 장르마다 상이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주제어: 단카(短歌), 풍토(風土), 로컬컬러,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1. 머리말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쳐 동아시아에서의 신질서 구축과 지리적 확장을 도모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조선은 다른 일련의 식민지들과 함께 '외지(外地)'로 불리며 일본의

일개 지방으로서 위치지어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연히 조선의 문화는 '지방문화'로 규정되며 중앙인 '내지(內地)'와는 구별되는 조선만의 독특함을 정체성으로 부여받게 된다. 즉, 조선 영토의 '외지화'와 함께 조선의 문화는 '중앙문화'에 대비되는 '지방문화'로 예속되었고, 이와 함께 조선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여 특정한 색을 부여하는 작업이 1920년과 193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조선다운, 조선의 특색을 가리키는 다양한 조어들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이른바 '로컬컬러' 발굴 작업은 20~30년대에 걸쳐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창[1]되었으나, 특히 로컬컬러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던 분야는 미술계로 1922년부터 1944년까지 관전(官展) 형식의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 의해 로컬 컬러의 생산이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술계와 같은 흐름으로 '로컬컬러'의 이미지화가 적용, 실현되었던 또 다른 장르는 사진 매체였다.[2] 사진의 경우도 회화와 다르지 않게 예술사진의 표현기법과 사진공모전 심사 기준에서 조선의 향토색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향토색의 표현방식은 1930년대 이후 예술사진의 규범이 되었다. 그리고 회화와 마찬가지로 사진 속 향토색에도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기생은 조선의 원시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소재로서 작용하였다.[3]

---

1) "1930년대 후반 '조선색'은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을 중심으로 한 회화의 '향토색', 영화의 '로칼 칼라' 등 문화의 전 영역에서 조선적인 것을 대표하는 소재였다." 문재원, 「1930년대 문학의 향토 재현과 로컬리티」,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제35집, 2009. 9, p. 401.

2) "사진살롱은 1934년 재조선 일본인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사진단체 '전조선사진연맹'이 주최한 공모전으로, 조선박람회처럼 관전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지만 조선총독부와 경성일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가장 권위있는 사진제도였다." 이경민, 「기생사진과 조선향토색의 유통」,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제46호, 2005. 3, p. 340.

3) "기생이 점경인물이 되어 풍경 속에 배치된 이러한 이미지들은 1930년대

미술의 회화와 사진과 같은 시각적 매체 이외에도 '조선적인 것 =로컬컬러[4]'의 발굴과 소비는 당시 조선 반도에서 식민지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존속하였던 단카(短歌), 하이쿠(俳句)와 같은 일본전통운문장르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일찍부터 '조선적인 것'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눈에 띠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단카나 하이쿠를 논할 때 이러한 '조선색'에 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엄인경은 다수의 논문에서 단카와 하이쿠, 센류(川柳) 속의 '조선색'에 관해 언급[5]하

에 그림과 사진 모두에서 일반적인 양식이 되었다. 그것은 선전과 사진살롱과 같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향토색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아카데미즘화되면서 화가와 사진가들이 향토색의 표현방식에 길들여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경민, 위의 논문, p. 346. 한편, 곽은희는 제국의 시선으로 표상되는 기생에 대해 "제국에 의해 표상된 식민지가 원시적 순수함을 간직한 타자의 모습으로, 가슴속에 사무치는 한이 있어도 슬픔을 곱씹고 조용히 앉아있는 기생의 모습으로, 제국의 이상적인 자아상이 투영된 나르시시즘적 타자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은 제국이 상상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곽은희, 「표상되는 조선, 동요하는 제국」,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0호, 2010. 12, p. 181.

4) '조선적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현재 각 분야, 장르마다 다르게 지칭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에 의한 '조선 정조(情調)'의 표현을 '조선 향토색(鄕土色)'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주로 '향토색' 또는 '로컬컬러'와 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하이쿠(俳句)나 단카와 같은 장르는 '조선색[朝鮮色]'과 '로컬컬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선적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단카의 경우는 '조선색'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하이쿠나 단카의 경우 미술계와는 달리 '조선적인 것'에 대한 담론이 조선의 낙후성이나 근대화되지 못한 식민 이데올로기성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뚜렷하므로,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향토색'이나 이의 영어역인 '로컬컬러'보다 조선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말에 가까운 '조선색'을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5) 일본전통시가속의 '조선색'에 관해서 엄인경은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전통시가 문헌의 조사연구-단카(短歌)·하이쿠(俳句) 관련 일본어 문학잡지 및 작품집을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4호, 2013. 2, pp. 93-110.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 고전시가 센류(川柳) 문헌 조사연구」,

였고, 최근에는 『진인』으로 대표되는 재조일본인 가인들이 조선의 고유함과 특수함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며 식민지=지방 가단으로서 일본의 중앙 가단과는 변별되는 향토성에 뿌리를 내리는 고유한 단카를 수립하려 했음을 지적하고, 가인들의 이러한 노력이 조선 민요에 대한 조사, 특성의 발견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6] 또한 구스이 기요후미(楠井清文)는 '조선색'이 이주자 문학 커뮤니티에서 상호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이주자의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7] 가장 최근의 일본전통운문장르 속 '조선색'에 관한 언급으로는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가 재조일본인이 조선의 풍물에 계절에 관한 감각을 가탁(仮託)하는 것에서 시작된 조선 하이쿠가 이윽고 향토색론과 향토 하이쿠라는 말과 함께 독자성을 성립해 갔으나, 무엇이 조선의 향토색인지는 정확히 규정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규정하려면 한 구 한 구(一句一句)를 음미하는 작업을 통해 조선 하이쿠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선 하이쿠에서의 향토색이란 애초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매직워드(magic word)'에 비유[8]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계에서의 '로컬컬러' 담론은 타 장르에도 자주 인용, 언급되고 있는데, 일본전통운문장르 연구 중에도 이를 함께 언급하며 '로컬컬러' 담론을 확대시키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24집, 2013. 4, pp. 203-233. 등 다수의 논문에서 '조선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6) 엄인경, 「한반도의 단카(短歌) 잡지 『진인(眞人)』과 조선의 민요」, 한양대학교일본학국제비교연구회, 『비교일본학』 제30집, 2014. 6, pp. 169-195.

7) 楠井清文,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移住者の文學 -文學コミュニティの形成と「朝鮮色」「地方色」-」, 立命館大學, 『立命館大學ART RESEARCH』 第10号, 2010. 3, pp. 5-14.

8) 中根隆行, 「異郷への仮託ー朝鮮俳句と郷土色の力學」, 高麗大學校日本研究センター, 『跨境日本語文學研究』 第1輯, 2014 6, pp. 22-32.

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9]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일제강점기 일본전통운문장르 연구에서 '조선색'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나, 나카네의 주장처럼 '조선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소 추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전통운문장르에서의 '조선색'에 관해 논할 때 그 명제가 무엇인지 부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실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풍토(風土)'라는 키워드와 연동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풍토'라는 말은 조선을 비롯하여 만주, 대만 등 새로운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한 식민지를 대상으로 발간된 다양한 서적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식민지의 풍토'는 '내지'와는 다른 '외지'의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환경, 풍습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개된 가단(歌壇)에서도 조선의 풍토는 '내지'와는 차별화되는 '조선가단(歌壇)'만의 특색으로 여겨졌으며, 당시 발간된 가집(歌集) 중에는 '풍토'와 연관하여 발간된 가집도 존재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풍토의 연속성과 유행을 바탕으로 먼저 1935년 발간된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의 『풍토-인간학적 고찰(風土ー人間學的考察)』을 통해 당시 '풍토'라는 개념이 어떻게 유통, 인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발간된 '풍토류' 서적들을 통해 조선의 풍토가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 연구되었고 그 대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그리고 1935년 조선 가단(歌壇)에서 '풍토'를 타이틀로 발간된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을 대상으로 단카 장르에서의 '풍토' 관련 소재를 살펴보고, 풍토를 제재로 한 개별 단카의 분석은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

9) 박광현, 「'내선융화'의 문화번역과 조선색, 그리고 식민문단 - 1920년대 식민문단의 세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제30집, 2013. 6, pp. 77-113.

集)』[10] 속의 「풍토편(風土篇)」을 중심으로 미술에서의 회화와 비교함으로서 시각적인 풍토와 문자화된 조선풍토의 비교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전개된 일본전통운문장르에서의 '조선색'에 대한 실체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풍토'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카테고리를 가시화하고, 또한 타 장르와 연동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서 이후 '로컬컬러' 담론의 다양화와 영역확대를 시도하고자 한다.

2. 근대 '풍토(風土)'의 개념과 식민지 조선의 '풍토(風土)'의 발견

1) '풍토'의 개념과 범위

'풍토(風土)'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그 토지 고유의 기후·땅의 상태 등 자연조건"'을 일컫는다. 그러나 '풍토'라는 말은 지리학을 비롯하여 민속학・심리학・언어학・철학 등에서 폭넓게 쓰여 왔으며, 따라서 단순히 어떤 지역의 자연 상태로만의 의미로 통용되기보다 "인간의 정신・생활양식을 구현하는 자연환경, 풍토 속

10)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 표상 단카가 일본인 단카 가인들의 고대 조선에 대한 '회고의 정서와 환영(幻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회고의 정서에는 일본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제국으로 확장해 나아가려는 욕망의 반영, 그리고 조선을 여성으로 젠더화시켜 수동적, 이국적, 성적으로 신비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한 구인모, 「단카(短歌)로 그림 朝鮮의 風俗誌 -市山盛雄 編,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SAI))』 제1권, 2006, pp. 215-238.과 단카에 나타난 조선 표상 양상과 재조일본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졸고, 「일제강점기 한반도 간행 단카(短歌)와 하이쿠(俳句) 연구 - 1930년대 조선색 담론과 창작물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pp. 1-108.이 있다.

에 인간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통일된 세계로서 총합된 개념[11]"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풍토'는 그 어원을 고대 중국의 발상에 두고 있으며 처음 '계절의 순환에 대응하는 토지의 생명력'에서 점차 확장된 의미가 일본에 유입[12]되어 이후 널리 사용되어지게 된다. 713년 일본 최초의 지방 지리서로 편찬된 『풍토기(風土記)』는 "단순한 지지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생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로 다채로운 내용을 갖는다. 즉 당시의 지리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외에 풍속서, 설화의 집합체로서 고대인들의 사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13]"으로 평가되듯이 일본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풍토'가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종래의 '풍토'의 개념을 자신의 이국 풍토 체험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 이론화 시킨 인물은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였다. 일본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알려진 와쓰지 테스로는 1935년 그의 저서 『풍토-인간학적 고찰(風土-人間學的考察)』을 통해 이와 같은 '풍토'의 개념을 학문적 이론으로 정립시켰다. 먼저 와쓰지는 '풍토'의 사전적인 의미 즉, '일상적인 사실로서의 풍토'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과연 그대로 자연현상이라 보아도 좋은가에 대해 문제 삼는다. 그리고 '추위'와 같은 기후를 예로 들어 '풍토(風土)'에서 우리들 자신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예를 들어 의복・화로(火爐)・숯 굽기・집・꽃구경・꽃 명소(名所)・제방(堤防)・배수로(排水路)・

11) 『日本大百科全書』, 小學館, 1994. http://japanknowledge.com/, 2014년 10월 25일 검색.

12) 『ブリタニカ國際百科事典』 17, TBSブリタニカ, 1995. pp. 129-133.

13) 강용자, 『풍토기』, 지만지, 2008, p. 10.

> 바람으로 인한 가옥의 구조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본래 우리들 자신의 자유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위나 무더위, 습기와 같은 풍토의 여러 현상과의 관련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풍토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며, 그러한 자기요해(自己了解)를 통해 우리들 자신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추위나 더위, 또는 폭풍이나 홍수를 단지 현재의 우리들 사이에서만 예방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선조 이래 오랜 세월 동안 퇴적되어 온 요해를 우리들의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14]
>
> *(밑줄 : 인용자)

즉, 와쓰지는 의복에서 시작하여 가옥의 구조와 같은 여러 수단들이 풍토를 통한 인간의 자기요해의 표현이며, 풍토에 있어서 자기요해는 진실로 이러한 수단의 발견으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로 인한 여러 수단과 양식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부터 그 지방의 풍토 속에서 싹튼 것이라 지적하며 풍토의 역사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와쓰지는 다양한 예를 통해 풍토를 단순히 일차원적인 자연환경이라도 보는 입장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풍토현상을 문예·미술·종교·풍습 등 모든 인간 생활의 표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15]고 하며 여러 예술양식을 풍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와쓰지의 풍토관념을 종합해 보면 풍토를 단순히 인간을 둘러싼 하나의 자연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토를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수단을 생산함으로서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역사성을 가진 것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풍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정된 지역의 의식주 양식, 그리고 예술 방식 등은 와쓰지의 말처럼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와쓰지는 '풍토'의 범위를 그 '토(土)'에서 기반

14) 和辻哲郎, 『風土-人間學的考察』, 岩波書店, 1935, p. 10.
15) 같은 책, p. 13.

한 인간의 다양한 '풍속(風俗)', '풍습(風習)', '고유한 예술' 등을 내포하는 광의의 의미로까지 확장, 이론으로 정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식민지 조선 '풍토'의 발견과 유행

이러한 와쓰지의 "『풍토(風土)』는 1967년까지 43쇄를 냈을 정도로 식민지 시기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애독되었다."[16] 그리고 그의 『풍토(風土)』는 비단 일본 사상사에서의 영향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각종 풍토 서적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17], 이 때문인지 당시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풍토와 관련된 서적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른바 '풍토류'의 서적들은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 지나(支那) 등과 같이 동시대의 식민지 일대에서 발간[18]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국의 식민지 풍토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조선과 관련된 각종 풍토 관련 서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은 아래의 〈표 1〉[19]과 같다.

---

16) 윤미란, 「어느 피식민자의 자기성찰 : 장혁주(張赫宙)의 『나의 풍토기(わが風土記)』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22집, 2010. 5, p. 143.

17) 윤미란은 와쓰지의 『풍토』가 일본 사상사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각종 풍토 관련 서적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서적들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일본 국내 또는 식민지에서 출판했든 간에 이러한 풍토기들이 모두 일본인 저자가 집필한 것이며 일본의 제국주의에 영합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윤미란, 같은 논문, pp. 143-144.

18) 만주, 지나 지역에서 발간된 '풍토류' 서적은 藤山一雄, 『新滿洲風土記』新京: 滿日文化協會, 1937. 米內山庸夫, 『支那風土記』 東京: 改造社, 1939. 田口稔, 『滿洲風土』 東京: 中央公論社, 1941-1943(추정) 등이 있다.

19) 표 1)의 데이터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검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1〉 일제강점기 조선 풍토에 관한 서적의 목록

	서명(書名)	저자	발행처	연도
1	朝鮮風俗集	今村鞆	斯道館	1914
2	朝鮮風土記	難波專太郎	大阪屋號書店	1928
3	朝鮮の風習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8
4	新朝鮮風土記	飾尾源藏	萬里閣書房	1930
5	朝鮮の風俗	(不明)	丸仁穀物協會	1933
6	朝鮮風土記	小野淸	民論時代社	1935
7	朝鮮風土記 (上-下卷)	難波專太郎	建設社	1942-43

시기가 앞선 것도 있으나 조선 이해의 입문서 구실을 하였던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을 필두[20]로 일제강점기 다양한 조선의 '풍토류' 서적들이 '풍속(風俗)', '풍습(風習)'과 혼용되며 출판되었다는 것[21]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서적들은 각각 저자를 달리하고 있고 그 기술 형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서적들이 다수 발간, 존재하였던 것을 통해 당시 '내지' 일본과 다른 식민지의 풍토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풍토류' 서적들이 제각각 수필형식의 체험문 또는 객관적, 주관적인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조선의 풍토'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위의 〈표 1〉에서 '풍토기(風土記)'라는 제목으로 엮인 것은 총4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 1935년에 간행된 『조선풍토기(朝鮮

20) 김혜숙,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 연구와 在朝日本人」,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8집, 2006. 9, p. 76.

21) 표 1)과 같이 당시 발간되었던 조선의 풍토와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풍토와 풍속, 풍습 등이 구별 없이 비슷한 단어들로 혼용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적들을 '풍토류' 서적이라 지칭한다.

風土記)』만이 「조선 각도(各道)의 조감」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조선 각지의 특색을 별개로 적고 있다. 이외의 서적들은 저자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지만, 조선의 풍경·풍속·전설 그리고 한일병합·조선철도 등과 같은 당시의 식민 통치 상황과 같은 정치성이 엿보이는 소재까지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발간된 '조선 풍토류' 서적들은 저자에 따라 그 소재나 전개 형식에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의 목차를 대조해보면 공통적으로 겹치고 반복되는 소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백의(白衣)', '기생', '온돌', '지게꾼', '붉은 땅', '민둥산', '세탁' 등은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던 대표적인 소재였는데, 1930년의 『신조선풍토기(新朝鮮風土記)』와 1942년의 『조선풍토기(新朝鮮風土記)』의 목차를 대상으로 몇 가지 대표성을 띠고 있던 풍토 소재를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신조선풍토기』: 백의인(白衣人)의 행적·부산일대·기생 기질(氣質)·건조한 산하(山河)·온돌 예찬·조선부인 관축도(觀縮図)·혼인 기습(奇習)[22]
> 『조선풍토기』(上)권: 조선의 백의(白衣)·천하대장군·호랑이·조선문자·인삼·석굴암 기록·백의 습관·한식(寒食)·제주도와 해녀·세탁·기생 이야기·조선의 경치·양반에 관한 속담·한강 대홍수 이야기·조선의 민둥산·조선철도·남대문 역·단오
> 『조선풍토기』(下)권: 양반·조선의 혼례를 보고·조선민요의 특질·호랑이 가죽·시장·미신·삼한사온·서당·조선의 동요와 민요·북한산과 남한산·조선의 높은 산·유례[23]

이는 동시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지방색 소재로는 풍경화에서는 초가집, 기와지붕, 돌담, 성곽, 고궁 등의 건축물을 비롯해서 우

22) 飾尾源藏, 『新朝鮮風土記』, 東京: 萬里閣書房, 1930. pp.1-5.
23) 難波專太郎, 『朝鮮風土記 上-下卷』, 東京: 建設社, 1942-1943. pp. 1-8.

물가, 시장풍경, 부엌이 주로 등장한다. 인물화로는 아이를 업은 소녀, 빨래하는 여인, 항아리를 머리에 인 여인, 베 짜는 여인, 아기에게 젖을 주는 여인, 조선 특산물로 언급되었던 기생, 지게꾼, 긴 담뱃대를 문 노인, 색동이나 백의 등 전통 의상을 입은 인물 등이다. 그 밖에 관혼상제와 세시명절, 김장을 담는 풍경 등의 풍속과 장독대, 도자기, 색상자, 소반, 태극부채 등의 공예품들도 자4주 채택되는 소재였던 것"[24]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내지' 일본과 풍토(자연환경)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싹 튼 풍속, 풍습 등이 당시 '외지' 조선의 특색을 대표하는 주요 소재로 발굴 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장르에 따라 '로컬컬러, 향토색, 조선색' 등으로 지칭되며 유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의 풍토와 풍속에 관한 당시의 서적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던 것일까? 이마무라 도모의 서적이 "조선 풍속집은 유일한 풍속집이지만 단연 학술에 참고가 되며 사무의 지침으로서, 또한 시정의 자료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익이 많이 될 것이다[25]"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이후의 조선 관련 풍토, 풍속집도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배경으로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아래 『신조선풍토기(新朝鮮風土記)』의 「서문」은 그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 이 책을 내지인과 조선인에게 바친다.
>
>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엄격한 논의로서가 아니라 매우 가볍게 여행 취미의 수필, 그리고 새로운 조선의 산과 강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여행담화 정도이다.

---

24) 김현숙, 「日帝時代 동아시아 官展에서의 地方色 : 朝鮮美術展覽會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 2004. 8, p. 68.

25) 秋山訒之介, 「題辭」-今村鞆, 『朝鮮風俗集』, 京城 : ウツボヤ書籍店, 1919. p. 4.

> 하지만 2천만 조선동포의 모습을 여실히 발견하고 그 모습을 일본 내지와 지나(支那)의 사정과 비교하면서 반도의 인정, 풍속, 또는 정치, 경제, 사회상, 민족성에서 오는 역사적 환경 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를 기원한다. 내선융화의 이상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26]

위와 같이 『신조선풍토기』는 무엇보다도 조선 풍토 속의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에 대해 수필 형식으로 전개한 '조선 풍토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엄격한 논의'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독자 대상도 대중을 향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목차를 보면 고대의 『풍토기(風土記)』와 달리 조선을 각 지방별로 나누어 전개하는 식이 아니라, 저자 무라오 겐조(師尾源藏)[27]가 조선의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해 직접 느낀 점들을 짧은 수필이나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조선풍토기』는 무라오 겐조라는 한 개인이 조선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술회를 수필 형식으로 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자가 밝히고 있는 『신조선풍토기』의 궁극적인 발간 목적이다. 저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이 서적이 조선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내선융화(內鮮融和)'라는 당시총독부의 정책 슬로건까지 인용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저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만세 소동의 경위', '동양평화의 기초', '내선동치(內鮮同治)의 이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과 같이 당시 식민 통치에 관한 것들도 '풍토류'의 서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풍토'에 대해 논하고 있던 식

---

26) 師尾源藏「はじかき」-『新朝鮮風土記』, 東京: 萬里閣書房, 1930. pp. 1-2.

27) 師尾源藏에 대한 정보로는 도쿄매일신문(東京朝日新聞) 1940년 11월 23일과 27일에 『歐米大學の忠魂碑』라는 제목의 기사가 남아있음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지 조선에 관한 '풍토류'의 서적들이 궁극적으로 내포,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의 통치 정책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에 일조하려는 정치적인 경향은 이후에도 유지, 심화되는 경향을 1942년 발간된 『조선풍토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말하지만 진정한 융화는 참된 조선을 아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도 일본의 풍습과 기질에 대해 알아야 하며, 동시에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동아건설이라는 크나큰 업적의 완수를 위해 한층 더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내지와 조선이 하나가 되어 증산에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더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선이 약 2천여 년 동안 이룩해 온 풍속・미신・전기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8]

즉, 일제강점기 식민자의 입장에서 발간된 '풍토류' 서적들은 당시의 식민지 통치 정책과 맞물려 전개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서적들은 제국의 식민 통치라는 역사가 만들어낸 '한 시대의 풍토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각화된 풍토와 문자화된 풍토

1)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의 발간과 단카에서의 '풍토'

이렇게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풍토류' 서적들의 대다수는 '신영토'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측면 이외에도 식민자의 입장에서 피식민지의 새롭게 발견한 풍토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

---

28) 難波專太郎, 『朝鮮風土記 (上卷)』, 東京: 建設社, 1942. pp. 1-3.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다. 또한 장르나 매개체는 상이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욕구나 탐구, 이해 등은 점점 비대해져 갔으며, 주로 '내지'와는 다른 식민지 고유의 '풍토'에 관한 것들이 '조선적인 것'을 대표하는 소재로 발굴, 소비되며 전형화 되어갔다.

그렇다면 일본전통 운문장르 중의 하나인 '단카(短歌)'에서 '풍토'는 어떻게 그려졌으며 타 장르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선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간행된 가집(歌集)은 총 22권으로 파악[29]되는데, 그 중 1935년도에 간행된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30] 한반도에서 나온 최대의 가집으로 다양한 조선 관련 소재의 노래들을 망라하고 있다. 『조선풍토가집』은 「풍토편(風土篇)」, 「식물편(植物篇)」, 「동물편(動物篇)」, 「조선지역별 편」, 「잡편(雜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00구가 넘는 노래가 실려 있는데, 특히 「풍토편(風土篇)」은 '조선'을 시작으로 조선의 풍토, 문화, 생활 전반을 총 123개의 명사로 분류하고 있어 어떠한 소재들이 조선의 풍토로서 읊어지고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적토・온돌・서당・백의・기생・양반・물 긷는 여자・지게꾼・혼례・세탁・빨래 방망이・조선옷・조선

29) 정병호・엄인경「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전통시가 문헌의 조사연구 - 단카(短歌)・하이쿠(俳句) 관련 일본어 문학잡지 및 작품집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4호, 2013, p. 99.

30)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은 1935년 이치야마 모리오(市山盛雄)가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 전반에 걸쳐 조선의 명승고적에 관한 단카 작품을 수집하여 정리한 가집이다. 이 가집을 발행한 곳은 진인사(眞人社)로 『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 이외에도 『맑은하늘(澄める空)』, 『한향(韓鄕)』, 『조선민요의 연구(朝鮮民謠の硏究』 등 조선과 관련된 가집과 총서를 다수 발간하였다. 저자 이치야마 모리오는 앞서 발간된 가집 『한향(韓鄕)』에 의하면 만주에서 조선으로 건너와 1921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에 머물렀던 재조일본인으로 호소이 교타이(細井魚袋)는 그가 반도가단(半島歌壇)의 진흥과 반도 가인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반도가단의 개척자'로 칭하고 있다.

아이' 등과 같은 소재들은 조선 '풍토류' 서적과 미술계와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형적인 소재 이외에도 '조선음식·신라 토기·고려도자기·아리랑·조선연극·천연두·한약방·고악기(古樂器)' 등과 같이 다양화된 소재들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소재들을 『조선풍토가집』에서는 '로컬컬러, 이국정조, 조선색(朝鮮色)' 등으로 지칭하며 적극 노래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는데, 「서문」을 적은 가와다 준(川田順)은 "한편 이번에 기획한 풍토가집은 아직 보지 않았으나, 이러한 종류의 가집은 로컬컬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31]"라고 하며 단카에서의 로컬컬러의 반영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즉, 단카에서 말하고 있는 '조선색' 소재는 '조선풍토' 전반임에 다름 아니며, 『조선풍토가집』에서는 이를 「풍토편(風土篇)」이라는 독자의 카테고리로 집합시킴으로서 '조선풍토'를 가시화 시키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풍토가집』이 앞서 본 조선 '풍토류' 서적들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지금까지 수필적인 풍토기와 경제적인 풍토기와 같은 종류는 1,2번 시도되었던 것 같으나, 그것들은 단순한 여행기나 통계, 현상보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선 풍토 속에 진정한 인간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 타산적이지 않으며 혼이 머무르고 있는 거짓이 없는 향토 인간의 표현이 있다.[32]

먼저 위의 인용의 앞 문장에서는 '수필적 풍토기'와 '경제적 풍토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여행기', '통계' 또는 '보고'라는 말로 당시의 풍토기들이 단순히 조선의 '풍토'에 대해 감상적이거나 통치를 목적으로 한 기술에 불과하

31) 川田順「序」-『新朝鮮風土記』, 東京: 萬里閣書房, 1930, p. 1.
32) 細井魚袋「序」-『朝鮮風土歌集』, 東京: 眞人社, 1935, pp. 7-8.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조선풍토가집』속 조선의 '풍토'는 이러한 것들과 달리 '타산적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생생한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조선미술전람회의 출품작과『조선풍토가집(朝鮮風土歌集)』의 단카 비교

그렇다면 이렇게 여타 당시의 '풍토류' 서적과 달리 타산성을 배제하려 했던『조선풍토가집』속 조선의 '풍토'는 어떻게 노래되어 졌는지를 '지게꾼'이라는 소재의 미술과 단카에서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그림 1〉[33]



〈그림 2〉[34]

그림 1)은 1937년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의 출품작으로 '가두(街頭)'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그림 2)는 1935년『조선풍토가집』속의 삽화로 모두 '지게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매

33)『朝鮮美術展覽會圖錄 영인본16券』, 景人文化社, 1982, p. 29.
34)『朝鮮風土歌集』, 東京: 眞人社, 1935. (표지 그림으로 페이지 없음.)

우 판이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림 1)에서 지게꾼의 모습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어 지친 기색이 역력하며, 그림 2)의 지게꾼은 지팡이를 짚고 서있는 자세로 물건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다. 각 그림의 배경을 보면 그림 1)은 어떤 건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식 건물이 건축 중인 거리임을 알 수 있으며, 지게꾼과 대비되는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들이 눈에 띈다. 그림 2)는 지면 상 생략되었으나 지게꾼은 한반도 전 지도를 그린 구도 중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선인 모습을 그린 그림들과 어우러져 있다. 두 그림은 각각 '전람회'와 '가집'이라는 상이한 장르 속에서의 지게꾼의 모습으로 이를 대칭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슷한 시기 정치성을 띠고 있던 미술과 이를 지양하려 했던 가집 사이의 조선 표상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1)은 실제 그림을 그린 주체가 눈에 보이는 길거리의 지게꾼을 그대로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을 상징하는 '백의(白衣) 차림의 지게꾼'을 근대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리에 배치함으로서 당시 '조선미술전람회'가 "이국취향과 지방색체의 요구를 통해 식민지를 과거에는 찬란했으나 지금은 열등한 지역으로 타자화"하기 위한 '조선적인 것'의 추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에서는 조선의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로 당시 지게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게꾼을 소재로 한 단카는 다음과 같다.

① 鮮人がチゲに負ひゆく穂芒のふさふさゆるる月の山道
조선 사람이 지게에 지고 가는 억새 풀 이삭 달 뜬 산길에 주렁주렁 흔들리네 달 뜬 밤

② 汗まみれ泥まみれなるチゲの顔ひとごとならずわが身かなしも
땀으로 범벅 진흙 범벅 지게꾼 얼굴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게 슬픈 마음이 드네

③ 密紺の皮土に並べて樂しめるゆとりあるチゲの生活ぞともしき
밀감 껍질을 바닥에 늘어놓고 즐거워하는 여유 있는 지게꾼 그 모습 부럽구나
④ 聲あげてチゲ呼びたれば二人來て一つの荷物を奪ひあひえをり
큰 목소리로 지게꾼을 부르니 둘이 와서는 하나의 짐을 두고 서로 진다 싸우네[35]

위의 단카에 등장하는 지게꾼의 모습은 대체로 조선 풍토 속의 하나로 정경묘사나 또는 읊는 객체가 직접 조선에서 경험하고 본 지게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①, ④의 단카와 같이 지게꾼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읊은 것부터 자신이 직접 경험한 듯한 지게꾼에 대한 노래, 그리고 ②, ③처럼 지게꾼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감정이 반영된 노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게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미술은 시각적이고 단카와 같은 시 장르는 어떤 객체에 대해 오감(五感)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후자에서 자연히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감각, 감성을 표현하고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조선풍토'를 각 장르의 주제로 삼고 있어도 그 표상은 개개의 장르가 가진 시대와의 정치적인 영향관계, 형식, 매체의 성격 등이 개입되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여성과 여성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은 자주 '조선풍토'의 소재로서 사용되었으며 미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그림을 찾아 볼 수 있다.

35) 市山盛雄, 『朝鮮風土歌集』, 東京, 眞人社, 1935, pp. 54-55.



〈그림 3〉[36]



〈그림 4〉[37]

그림 3)과 4)는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선출된 빨래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머리에 독을 이고 가는 여성을 그린 그림으로, 지게꾼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에 관한 소재로 자주 정형화된 소재였다. 이 두 그림은 앞서 본 그림 1)과 같이 식민자의 시선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조선 여성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그림들이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관전 형식의 전람회에 선출된 그림이며, 그 과정에서 "'지방색'을 권장하였지만 그 지역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발견된 지방적 특색을 식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상투화·획일화[38]"했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그림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그림 이외에도 조선 풍토와 인물 전반에 대한 그림들은 "우리나라 풍습의 소박한 표현이나 농민의 생활상이라기보다는 근대적

36) 『朝鮮美術展覽會圖錄 영인본9券』, 景人文化社, 1982, p. 3.
37) 같은 책, p. 19.
38) 김현숙, 앞의 논문, p. 46.

일본인들이 향수에 젖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이 한가롭고 전근대적인 시골의 풍물 묘사가 주[39]"였던 것이다. 한편 『조선풍토가집』에는 위와 같은 그림 속 여성의 모습을 '세탁(洗濯)'과 '물 긷는 여자(水汲む女)'라는 소재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⑤ 窓ゆ見る谷の流れに山里の鮮女らむれて物すすぎをり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계곡 물은 흐르고 산촌 조선 여자들 무리지어 빨래 하네
⑥ 濁りたる流れに鮮女むらがりて梅雨のはれまを衣すすぐなり
흐려진 물이 흐르는 곳에 조녀들 무리지어 장마 개인 틈을 타 옷을 빨고 있구나
⑦ すすぎもの頭にのせておりて來る鮮婦の乳房もりあがりいる
빨랫감 머리 위에 지고서 오는 저 조선 부인 가슴 풍만하기도 하네
⑧ 水甕をあたまにのせてかろがろと霧ふかき坂をのぼる女みゆ
물독 머리에 이고 조심성 없게 안개가 짙은 언덕을 오르고 있는 여성을 보고있네
⑨ 朝水を汲みてあたまにのせかへるこの國女の姿さびしき
아침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가는 조선 여성의 모습 슬프게 느껴지네[40]

먼저 여성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읊고 있는 ⑤의 단카는 그림 3)의 여성들을 그대로 옮긴 듯이 시각적인 그림과 문자화된 단카가 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⑥과 ⑧의 단카도 각각 빨래하는 여성과 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한편 ⑦과 ⑨의 단카는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39) 김영나, 「李仁星의 鄕土色 -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한국미술연구, 『미술사논단』 통권9호, 1999, pp. 191-211.
40) 市山盛雄, 『朝鮮風土歌集』, 東京: 眞人社, 1935, pp. 89-90, pp. 54-55.

보고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노래로 읊은 이의 성적인 시선, 연민의 감정과 같이 조선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과 감정이 반영된 노래임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조선풍토'를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시각화된 미술과 단카에서 문자화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 '관전(官展)'이라는 매체의 성격 상 일률적이고 고정화된 이미지로 조선의 풍토가 소비, 선전되었다. 그러나 단카의 경우 읊는 주체에 따라 '조선풍토'에 다양한 시선, 감정이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하나의 표상이 아닌 복합적인 이미지로서의 '조선풍토'를 읽어낼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전통 운문장르에서의 '조선색'에 관해 논할 때 그 명제가 무엇인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고, 그 실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를 '풍토(風土)'라는 키워드와 연동하여 고찰해 보았다. 일제강점기 '신영토'로 발견 된 식민지 조선의 '풍토'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듯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다양한 조선과 관련한 '풍토류'의 서적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류' 서적들은 당시 식민지의 통치 정책과 맞물려 전개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시대의 조선 '풍토류' 서적들은 제국의 식민 통치라는 역사가 만들어낸 '한 시대의 풍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풍토의 소재로서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에서의 '로컬컬러'로 소비되었던 소재와 '풍토류'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풍토, 풍속, 풍습 등과 같이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들이 '조선풍토'로 묶이며 '로컬컬러, 향토색, 조선색' 등으로 지칭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한반도에서 활발히 전개된 '단카'장르 역시 마찬가지로, 1935년 발간된 『조선풍토가집』의 「풍토편」은 이를 가시화하며 풍토로 대변되는 '조선색'을 '조선가단'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게꾼, 빨래하는 여성, 독을 이고 가는 여성'을 예로 공통적인 '조선풍토'를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시각화된 미술과 단카에서 문자화된 것을 비교함으로서, 전자와 달리 단카의 경우 읊는 주체에 따라 '조선풍토'에 다양한 시선, 감정이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식민자의 시선에서 고정된 조선의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주체의 시각과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본고를 바탕으로 단카 이외의 하이쿠와 센류(川柳)장르도 포괄하여 '풍토'를 키워드로 한 일본전통 운문장르 속의 '조선색'의 영역을 확대하고, 본고에서 다룬 3가지 '조선풍토' 소재 이외에도 미술과 연동지어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로컬컬러' 담론 연구의 영역간 교류와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市山盛雄, 『朝鮮風土歌集』, 東京, 眞人社, 1935.
難波專太郎, 『朝鮮風土記 上-下卷』, 東京: 建設社, 1942-1943.
師尾源藏, 『新朝鮮風土記』, 東京: 寓里閣書房, 1930.

2. 논문

곽은희, 「표상되는 조선, 동요하는 제국」,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

연구』 제60호, 2010. 12, pp. 145-186.
구인모, 「단카(短歌)로 그린 朝鮮의 風俗誌 – 市山盛雄編, 『朝鮮風土歌集』(1935)에 對하여」,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SAI)』 제1권, 2006, pp. 215-236.
김영나, 「李仁星의 鄕土色 –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 한국미술연구, 『미술사논단』 통권9호, 1999, pp. 191-211.
김현숙, 「日帝時代 동아시아 官展에서의 地方色 : 朝鮮美術展覽會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 2004. 8, pp. 45-93.
김혜숙,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 연구와 在朝日本人」,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8집, 2006. 9, pp. 75-112.
문재원, 「1930년대 문학의 향토재현과 로컬리티」,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제35집, 2009. 9, pp. 397-430.
박광현, 「'내선융화'의 문화번역과 조선색, 그리고 식민문단 – 1920년대 식민문단의 세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제30집, 2013. 6, pp. 77-113.
엄인경,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 고전시가 센류(川柳) 문헌 조사연구)」,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24집, 2013. 4, pp. 203-233.
_____, 「한반도의 단카(短歌) 잡지 『진인(眞人)』과 조선의 민요」,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회, 『비교일본학』 제30집, 2014. 6, pp. 169-195.
이경민, 「기생사진과 조선향토색의 유통」,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제46호, 2005. 3, pp. 339-347.
유진환 · 이창현, 「일제하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신문보도에 나타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4호, 2011 여름, pp. 5-31.
윤미란, 「어느 피식민자의 자기성찰 : 장혁주(張赫宙)의 『나의 풍토기(わが風土記)』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22집, 2010. 5, pp. 137-158.
정병호 · 엄인경,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전통시가 문헌의 조사연구 – 단카(短歌) · 하이쿠(俳句) 관련 일본어 문학잡지 및 작품집을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4호, 2013. 2, pp. 93-110.
楠井清文,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移住者の文学 – 文学コミュニティの形成と「朝鮮色」「地方色」–」, 立命館大学, 『立命館大学ART RESEARCH』 第10号, 2010, pp. 5-14.
中根隆行, 「異郷への仮託ー朝鮮俳句と郷土色の力学」, 高麗大學校日本研究セン

ター『跨境日本語文學研究』第1卷, 2014. 6, pp. 22-32.

3. 단행본

강용자,『풍토기』, 지만지, 2008.
정병호·엄인경,『한반도 간행 일본전통시가 자료집-가집편 3』, 이회, 2013.
和辻哲郎,『風土ー人間学的考察』, 岩波書店, 1935.

[Abstract]

The Discovery of Colonial Chosun 'Climate'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Chosun Climate in Tanka
- A Comparative Study of Visualized and Tanka in Text -

Kim, Bo-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Chosun's local color in Japanese traditional poem genre, especially in Tank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ased on the climate, which was in fashion at that time. First, the distribution and perception of climate was examined based on 'Climate - Anthropological Discussion' written by Watsuji Tetsuro in1935. At that time, the word 'climate' was used in various publications made for the colonies including Chosun, Manchuria, and Taiwan, and the climate of these colonies had a broad meaning that includes diverse and unique natural environment and customs of the 'overseas' that was different from Japan. Also, based on this idea, various 'climate' books appeared relating to the climate of Chosun, which was related to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Meanwhile, in Tanka circles that took place in Korea, Chosun's climate was considered characteristic to Chosun Tanka circles, differentiated from Japan, and many anthologies of Tanka published during this time were focused on Chosun's climate.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thropology of Chosun Climate Tanka, titled Climate and published in 1935 by the Chosun Tanka circles, the perception of climate in Tanka was examined and the visualized Tanka and Tanka in text were compared by using 「Climate Piece」. The result showed that Chosun's climate was distributed as a Chosun's main local color, like in other genes, and, in comparison to visual art of the same subject, Tanka shows various symbols rather than one symbol.

Key words : Literature of a colony, Tanka, climate, local color

김보현
소속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6동 203호
전화번호 : 010-5290-4961
전자우편 : mint1130@nate.com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2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20일 게재 확정함.